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 인천 강원 충남 충북 전북 등 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모여 미세먼지 공동연구체계를 구축하고 협력 대응방향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

‘미세먼지 대응’ 7개도시 연구체계 구축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수도권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서울, 인천, 강원, 충남, 충북, 전북 등 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 연구체계를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미세먼지 공동연구회’에서 7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미세먼지 성분 분석 모니터링 공

동 연구를 실시하는 등 공동 연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7개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분기별로 1차례씩 미세먼지 담당 팀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시도별 미세먼지 분석 자료 공유 ▲모니터링 연구과제 선정 ▲미세먼지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공동대응 체계 마련으로 지역별 비교를 통한 정확한 성분 및 원인 분석이 가능, 보다 과학적인 자료 제공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문제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김승열=기자 kimsy@

경기도, 23일 ‘ART&VR’ 전시회 개최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문화예술분야와 첨단 기술인 가상/증강현실(VR/AR)을 융합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나선 가운데, 관련 성과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광고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ART&VR’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도내 VR/AR 기업과 국내 아티스트로 구성된 10개 팀과 협약을 맺고 3개월 동안 제작지원, 멘토링 등 개발과정을 지원해주는 ‘ART&VR’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다. ‘만져 보세요(Please Do Touch)’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ART&VR’ 프로젝트의 성과를 전시해 업계 관계자와 일반 관객들도 VR/AR 기반 예술 작품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시 외에도 문화예술계 거장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작품세계와 철학을 들여다보는 마스터클래스, 관객과 직접 소통하고 대화하는 시간인 아티스트 토크, VR/AR 콘텐츠 개발기업과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예술 관련기관이 직접 만나 신규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매칭 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경기=김승열 기자

평택시, ‘청소년 기관 직업체험’ 참가 접수

평택시는 ‘2019 청소년 기관 직업체험’에 참가하는 사회적 배려 청소년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만12세 이상 만22세 이하의 사회적 배려 청소년이다.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가 추진하며, 15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해 19일 최종발표한다. 선정된 48명은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5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활동하게 된다.

참가 청소년들은 활동기관에서 청소년활동지원, 청소년 안전놀이기 지원, 청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 로비 놀이터 모습. /경기 평택=이보현 기자 bhlee777@

소년 활동장 정리정돈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경기 평택=이보현 기자 bhlee777@

오늘의 날씨

1월 17일(목) 음력 : 12월 12일

수도권 날씨 -2 ~ 4°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7:45 | 해질 / 17:39

연천 -8/3, 동두천 -6/5, 가평 -7/4, 파주 -9/4, 서울 -2/4, 양평 -5/4, 인천 -1/3, 수원 -1/3, 용인 -1/3, 평택 -3/4, 백령도 0/4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전남에 월급받는 농민 생긴다

3월부터 ‘농업인 월급제’ 시행 8개월간 매월 30만~200만원 다음달 15일까지 농협서 접수

전라남도도는 도 단위 지자체 최초로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전라남도도는 2019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희망자를 해당 시군을 통해 오는 2월 15일까지 신청받아, 3월부터 매월 30만~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는 순천시, 나주시 등 16개 시군에서는 해당 농협과 1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농업인 월급제 참여를 바라는 농업인은 2월 15일까지 농협과 구매약정 후 관할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다. 벼·양파·마늘·포도·감·배·사과·딸기 등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지역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배 면적이 있는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품목별로는 벼 4100㎡, 감 1300㎡, 양파 1000㎡, 배 800㎡, 포도 780㎡, 마늘 660㎡, 딸기 660㎡, 사과 580㎡ 등 기준 면적 이상을 재배해야 한다.

농업인들에게 지급하는 월급여액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매월 최저 3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다. 농협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농협에서 미리 지급한 급여액은 수확기 수매대금에서 일괄 상환하며, 미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는 도와 시군에서 지원한다. 농가는 이자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과 출하 약정 체결한 총액의 60% 범위에서 금액을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받는 제도다.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도입됐다.

전라남도도는 지난 11일 농업인 월급제 추진위원회를 열어 농협에서 농가에 미리 지급한 금액에 대한 지원 이자율, 도·시군 보조 비율, 지원 규모 및 사업량 등

을 확정했다.

지원 이자율은 시군과 지역농협의 업무협약에 따라 최대 5%다. 이자 발생에 따른 도·시군 부담 비율은 도비 15%, 시군비 85%다. 지원 규모는 최대 6000 농가다.

시군에 농업인 월급제 참여 의향을 사전 조사한 결과, 목포시, 여수시, 담양군, 구례군, 화순군, 함평군 등 6개 시군은 참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 지역의 농업인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김종기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 월급제가 올해 도 전체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만큼 농업인들이 많이 신청해 안정적 농업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바란다”며 “농업인도 월급을 받는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 영농의욕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 참여하지 않은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업인 월급제 시행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시군 농정부서나 전라남도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드림체크카드’로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인천시, 일자리 예산 930억 편성 매월 50만원씩 총 300만원 지급

인천시가 청년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드림체크카드’를 신설 운영하고, 7년 만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재개 등 ‘청년이 살기 좋은 인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일자리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930억원으로 편성, 청년들이 인천에 뿌리내리고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예산 내용은 창업기업 및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44억원, 예비창업자 지원 드림존 조성(신규) 사업에 34억원, 인천 창업자금 조성 창업성장 펀드(신규) 사업에 20억원을 편성했다.

또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 사업과, 인천 청년 공간 유지기 운영,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 등으로 총 148억원의 예산을 세웠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신설한 ‘드림체크카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실질적인 취업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드림체크카드를 이용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급하며, 구직활동을 위한 직·간접비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최종학년 기준 졸업 2년이 경과한 만 19세~39세 미만 미취업청년으로 올해부터 고용



지난해 11월 3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150인 인천시장 청년정책을 말하다 토론회. 인천시

노동부에서 시행예정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용사각지대에 있는 장기 미취업상태인 청년구직자를 돕게 됐다.

이와 함께 시는 높은 생활비, 대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미래 설계와 자립을 위한 목돈마련의 기회 제공을 위해 ‘드림 For 청년통장’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드림 For 청년통장 지원대상은 인천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2년 이상 청년재직자로 계약연봉 2400만원 이하인 39세 정규직근로자가 해당된다.

근로자가 매월 10만원씩 3년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 360만원에 시에서 640만원을 지원해 3년 후 1000만원의 목돈마련이 가능하도록 생애 1회 지원한다.

드림체크카드와 드림 For 청년통장 두 제도 모두 2019년 신규사업으로 현재 보건복지부 사업승인 신청 중이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4월 말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자 공고와 본격적인 시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도 인천시는 재정난으로 2013년부터 중단했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2019년 1학기 학자금 대출분부터 재개한다. 저소득·다자녀 가구에 한정했던 수혜 대상 범위도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일환이다.

기존 대학생 본인이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만 해당이 됐으나, 올해부터는 부모가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존 저소득가정과 다자녀 가구 학생에서 가구소득 10분위 중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청년 취업난을 고려해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까지도 수혜 대상으로 포함했으며, 수혜 대상자가 1600여명에서 300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j@

“지방도 830호선 국도로 승격해야”

조인호 완도군의회 의장 건의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장은 ‘제239회 전남 시군의회의회 회의’에서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을 위한 지방도 830호선 국도 승격을 건의했다. 조인호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우리 완도가 포함된 남해안 연안은 천혜의 생태자원과 자연환경

을 갖추고 있어 관광자원을 통해 세계적인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를 조성해야 하지만 도로 등 대규모 토목 공사는 많은 재정이 수반되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방도는 국가와 지역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 기반시설 중 하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에 국도 27호선 기점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지방도 830호선(완도 고금도~고흥 거금도 구간 42.4km) 국도 승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22개 시군의회 의장들은 전남의 여러 도서지역 접근성 개선은 물론 인적 물적 교류강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는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고 적극 공감하고, 이번엔 채택된 건의안을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완도=이재건 기자 wando1106@